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4년 표어 §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막10:45)

† 행동 지침 †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형제의 죄를 목격할 때

(마 18:15-20)

When You Witness Your Brother's Sins

(Matt.18:15-20)

교회, 이처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단어는 없을 것입니다. 복음주의의 대표적 지성인 필립 안시가 말한 것처럼 교회는 우리의 사랑이자 동시에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완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사람들로 인해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15절).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셨습니다. 형제, 자매라는 단어는 우리로 하여금 사랑과 힘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사랑하는 형제가 죄를 범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가 도덕적인 혹은 영적인 죄를 범한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There isn't such a wonderful and glorious word in the world, as Church. Just like Philip Yancey, an intellectual of evangelism said, church is not only our love but also worry. Because, though the church must be complete, an utter nonsense from incomplete people has happened.

“If your brother sins against you, go and show him his fault, just between two of you. If he listens to you, you have on your brother over” (v. 15).

Jesus calls all of us who are in the church community “brethren”. The words, brothers, sisters make us feel love and power. Nevertheless, unfortunately, it happens that beloved brethren can commit a sin. If brethren commit a moral or spiritual sin in the church, what do we have to?

1 First step: meet and encourage one to one

If there is a problem of relation in which other person's fault happens in the midst of the church, it makes our mind strenuous. At this time, Jesus tells us 'meet one to one'. But most of people reveal unjust situation or publicize and blame the other side rather than not solving the problem in silence. However, Jesus emphasizes that anyone who made a mistake is our brethren and encourages us to awaken them to their mistake in which they made with a loving heart and lead them to the right road.

2 Second step: take two or three witness and establish a testimony

When people commit a sin, there are few people who confess it and establish a testimony. Owing to their pride, or shyness of accepting their error, they do not recognize their sins. That's why Jesus said that they should take one or two others along, give testimony of two or three witnesses (v. 16).

At this time, the role of witness is not to take someone's side but to be only a witness, because it is clear that they committed a sin and did not confess it.

3 Third step: tell it to the chu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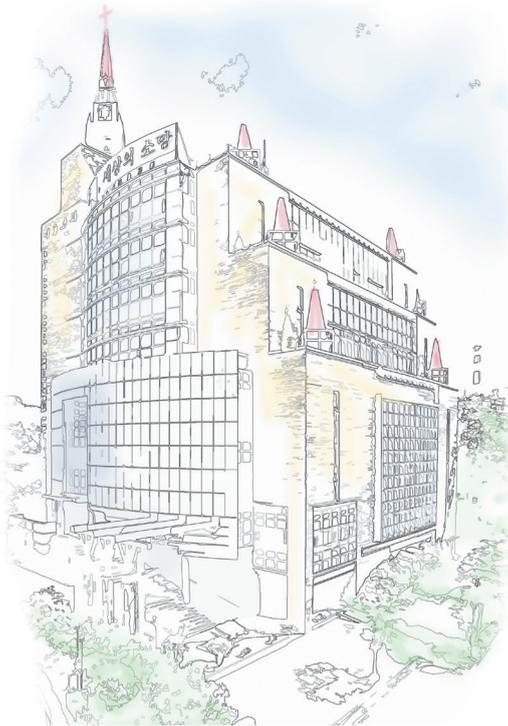
If they do not listen to you though you met one to one and encouraged them with two or three people, you should tell it to the church. And then, the church should handle it by the department of the official process management. In the Presbyterian Church, the church conference should do it. The representative sent by the church meets and lastly encourages him.

4 Forth step: the church should study the importance of sin and take care of it properly

If he does not obey the authority of the church, lastly, the church has to take care of it. It means excommunication. That is the biggest punishment that is given by the church.

My beloved Christians,

The fact that we meet our brethren who committed sins one to one, take two or three witnesses along, and tell it to the church means that we do not punish him but we want to have him. We must follow Jesus example, by loving and living with our brethren. I sincerely pray that all of us will accomplish one work of unit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1단계 : 일대 일로 만나 권면하라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이 잘못에 의해서 관계의 문제가 생기면 참으로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이럴 때 주님은 먼저 그 사람과 일대 일로 만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기 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털어놓거나 또는 상대방을 홍보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잘못된 그 사람은 바로 우리의 형제라는 것을 강조하시며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잘못을 일깨워서 올바른 데로 인도하라고 권면하십니다.

2단계 : 두 세 증인을 데리고 확증하라

잘못을 범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존심 때문에 혹은 잘못을 시인하기가 부끄러워서 죄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두 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권고하고 확증하라고 하십니다(16절).

이때 이 증인들의 역할은 편들러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한 것이 분명한데 권고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증인, 목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3단계 : 교회에 알리라

일대 일로 만나서 권면하고, 두 세 사람이 함께 가서 권면했음에도 듣지 않는다면 교회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교회의 공식적인 처리 기관을 통해서 이 문제를 살피야 합니다. 장로교회는 당회가 그 일을 합니다. 교회의 보냄을 받은 대표는 그 사람을 만나서 마지막으로 권고를 합니다.

4단계 : 교회는 죄의 경중을 살피 적절한 처리를 해야 한다

만약 그 사람이 교회의 권위에도 순종하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출교를 의미합니다. 출교는 교회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처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범한 형제를 일대 일로 만나 권면하고, 두 세 사람의 증인도 데리고 가고, 교회에 알리는 것은 그에게 벌을 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얻기 위한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모든 형제자매들이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므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2014 사명자 대회 『새생명축제』 5일 앞으로!

새생명축제 : 10월24일(금) / 10월26일(주일) I, II, III부, 찬양예배 시
자율기도 : 1,641명 참석 / 릴레이 성경읽기 : 7독 이상 진행 중

2014사명자대회(위원장 : 박두호 장로)가 은혜 중 시작한 릴레이 성경읽기는 10월 15일 현재 7독을 하에 진행 되고 있다. 현재 50일동안 24시간 계속되는 었다.(집계 : 사명자대회 기도분과) 아직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은 24시간 기도 신청서를 1층, 2층 보관함에 제출하기 바란다.

연속기도회에는 성도들이 본인의 시간에 맞춰 책임 있게 참여하므로 기도의 불길이 이어지고 있다. 자율 기도에 참석한 인원은 1,641명이며 창세기부터 읽기

2015년 섬김위원 봉사지원 신청 11월 2일(주일)까지 사무국으로 제출토록

2015년도 섬김위원으로 봉사를 원하는 성도는 오늘 후보 삼지로 제공된 봉사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오는 11월2일(주일)까지 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

하는 성도들의 경우에는 또 다시 봉사지원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기존봉사자 중 부서를 옮기기를 원하는 성도와 내년 새로이 봉사를 원하는 성도들만 제출하면 된다.

이미 봉사하고 있는 부서에서 계속 봉사하기를 원

제45회 목회자 신학세미나 『목회의 심장이 다시 뛰다!』 10월 30일(목)~31일(금) 오전10시~오후6시



제45회 목회자신학세미나가 10월 30일(목)~31일(금) 서울교회에서 열린다. 이번 주제는 '목회의 심장이 다시 뛰다'이며 강사는 D.A. Carson 박사(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 박영선 목사(남포교회), 한 흥 목사(새로운교회), 최갑종 총장(백석대), 박수암 명예교수(장신대)이며 통역으로 박노철 담임목사가 선다. 강의 주제는 D.A. Carson 박사의 「목회와 복음」, 박영선 목사의 「목회와 설교」, 한 흥 목사의 「목회

와 리더십」, 최갑종 총장과 박수암 교수의 「목회와 종말론」이다. 신청기간은 10월 1일(수) ~ 10월 25일(토)까지이며 등록회비는 사전등록은 20,000원(교재, 중식/다과, 기념품 포함), 당일 등록은 30,000원이며 신학생, 선교사, 미자립교회 목회자는 10,000원(사전, 당일 등록)이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서울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란다.

동계 비전트립 단원 모집

2015년 2월 2일 - 2월 12일 / 미안마 양곤

선교위원회(위원장 : 이영기 장로)는 2015년 동계비전트립 지역을 미안마 양곤으로 확정하고 단장으로 최차순 집사를 임명하였다. 동계비전트립은 교회학교 및 선교사 사역을 지원하게 된다. 선교일정은

2015년 2월 2일(월)~2월 12일(목)이며 신청마감은 2014년 10월 30일까지 사무국으로 하기 바란다. 자세한 문의는 최차순 집사(010 - 9042-3388)에게 하기 바라하며 많은 성도들의 참여 바란다.

전교인 성경암송대회 은혜중에 마치다



지난 10월17일(금)에 있었던 전교인 성경 암송대회가 은혜중에 마쳤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교육1국(개인)**
대상 : 손예진
금상 : 손예은, 권예지, 송하영, 김장겸
은상 : 김하진, 한예승, 박서진, 홍성연
동상 : 유우희, 최민영, 우정연
- 교육1국(단체)**
금상 : 유치부-임하람, 장유정, 조민성, 조연우, 장한솔, 양병제
유년부A팀-김보겸, 유주아, 김동혁, 장해윤, 박서연, 김윤호, 안철수
- 은상 :** 유년부B팀-정은재, 이혜나, 이시연, 장유선, 한예준, 유주영, 송하은
초등부A팀-이세라, 옥유진, 문영주
초등부B팀-김은빈, 송민주, 김승화,



- 김도연, 박주원
- 영어부(개인)**
대상 : 장하늘 금상 : 이상민 동상 : 오은
장려상 : 이정현
- 영어부(단체)**
대상 : 중등부3팀-박종필, 김소람, 공지혜, 남사라, 최서린
금상 : 중등부1팀-공지혜, 박혜민, 최지혁, 백세희, 김주희
은상 : 중등부2팀-박혜민, 마승환, 옥준용, 박우현, 박민수
동상 : 장년부-김광종, 고윤상, 송영준, 김진달
장려상 : 고등부-김한울, 두승호
- 교육2국**
대상 : 장년부-김진달
금상 : 청년부-박유진
은상 : 장년부-김경자
장려상 : 장년부-박동률

목사님, 궁금해요!

이중은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150)

(문 150) 아모스8:11-12에 나오는 예언은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입니까? 그렇다면 그 예언은 성취되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에 가지고 있는 말씀을 주 여호와와 말씀(11절)이라 할 수 있습니까?

(답) 아모스는 여로보암2세의 통치(793-753B.C) 말엽에 북이스라엘의 배신에 대하여 예언한 예언자였습니다. 앗수르가 도성과 독립 국가인 북왕국을 멸망시켰을 때 즉 722B.C에 사마리아 함락에 대한 예언을 특별한 환상으로 예언한 것입니다.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와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암8:11-12) 이 경고는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10년에 대한 것입니다. 성직자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인도받기를 원하지만 헛된 것을 찾는 기간입니다.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마치 사울왕이 길보아산 전투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삼상28:6) 그렇습니다. 사울의 완고함과 불순종 까닭에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시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여호와와 말씀은 계시된 히브리 성경은 아닙니다. 오히려 백성을 특별히 인도하시는 말씀을 다가오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찾은 것입니다. 이 예언은 931B.C에 여로보암1세에 의해 세워진 10지파의 왕국이 세워지는 비극의 기간 동안에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왕국은 다윗 왕조 하에 135년 동안 계속되고 바벨론 포로 후 다시 태어났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기본적 경고는 나라와 백성들이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국가적 배신행위가 있을 때 계속적으로 적용되었고 또 적용될 것입니다.

성경말씀을 조심히 읽지 않는 이들은 재앙이 그들에게 닥쳐올 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더 이상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롬15:4).

(다음 주 계속)

사명자대회 - 전도합시다

이제 VIP에게 다가갈 때입니다!



이민호 집사 (사명자대회 전도분과장)

목자 잃은 어린양무리 같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5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설립된 서울교회회는 매년 “사명자대회”의 전통을 이어오며, 전국시민 양성과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 구제를 위한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특별히 5000명 이상의 VIP를 품고 기도하며, 1000명 이상이 우리교회를 방문하여, 300명 이상이 등록교인 되기를 소원하는 5.1.3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매일 매시간 이어지는 기도 릴레이 참여 인원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속기도회에 참여할 수 있을까?’를 걱정했던 나의 작은 믿음을 부끄러워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 사명자대회 연속기도회에 이어지는 발걸음은 우

리가 품고 기도하는 VIP를 위한 도고기도 시간이며, 사명자로 바로서는 시간입니다. 사명자대회 기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우리 사명자들은, 이제! VIP에게 다가갈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바로 내가 품고 기도하는 VIP를 만나거나 전화해서, 나와 우리교회가 당신을 위하여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과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사람 되자고 간곡히 권면해야 합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나 기쁜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며 다음에는 꼭 함께하기를 다짐하듯이, 사명자대회 기간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로 은혜 충만한 우리들은 5000명의 VIP를 생각하며 지속적으로 만나고 전화하여 10월 24일(금)과 26일(주일)에 열리는 “새생명축제”에 꼭 초대하여 귀한 열매를 맺는 기회를 만듭시다.



2013 새생명축제 (사진 : 최영철 집사)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

믿음의 역사를 체험합시다



차영도 집사 (고등부 부장)

오는 11월 13일(목)은 대입 수능시험일입니다. 수험생 뿐만 아니라 수험생을 둔 학부모들께서도 수험생 못지않게 긴장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치열한 입시경쟁에서 어느 대학에 입학하느냐에 자녀들의 인생이 좌우된다고 하면 더욱 그러하리라 봅니다. 그러나 인생만사의 부침(浮沈)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들의 지나온 삶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대학 입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고 귀히 사용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초조해 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학부모들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수험생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기도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금번 3차에 걸쳐 이루어지는 학부모 기도회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위에 믿지 않는 학부모들도 기도회에 초대하여 같이 기도하면 전도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금년에는 학부모 기도회가 수능 당일 뿐만 아니라 **10월 18일(토)부터 11월 8일(토)까지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501호에서, 매주 일요일에는 12시 40분 504호에서** 고등부 천세종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로 진행됩니다.

기도회에서는 우리 믿음의 수험생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최선을 다해 가장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미래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기도합니다. 우리의 뜨거운 합심기도를 통해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할 줄 믿습니다. 수험생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넌 잘 할 수 있어!, 미안해·고마워·사랑해!” 등 격려의 말을 자주 해 줌으로써 입시의 부담감을 떨쳐내고 화목한 가정 천국을 만듭시다.

이번 학부모 기도회를 통해 서울교회 모든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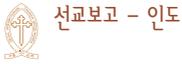
2013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 (사진 : 이준태 집사)



참된 겸손과 순진한 복종

최차순 집사

해마다 이맘때면 이스라엘 민족의 유월절이 있듯이 우리 서울교회는 어려운 역경속에서도 영혼사랑의 굶주림과 기도의 목마름을 채우려는 사명자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대리석으로 잘 지어진 예배당에서 거룩한 체면을 지키기보다 철저한 영적인 성찰과 주님 안에서 더 낮은 자세로 이웃교회를 섬기기 위한 간절한 몸부림으로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길을 기쁨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분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짧은 듯 했고, 꼭 필요한 경우일지라도 자기 육신을 돌보는 것에는 마음 아파했고 교회를 세우는데 시간과 물질을 기쁜 마음으로 내어놓았습니다. 참된 겸손과 순진한 복종으로 주님을 섬기며 성도를 사랑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냉담하며, 주님의 그 크고 위대한 십자가 사랑을 얼마나 값싸게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우리에게선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었던 영혼 사랑의 굶주림, 철저한 영적인 승화, 참된 겸손과 순진한 복종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영혼사랑과 기도의 불씨가 우리 안에서 잠들지 않기를 하나님께 사명자로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인도에서 한알의 밀알이 되어

인도 선교의 첫 발을 내딛기 위해서 저는 남편과 스쿠터를 타고 지역을 답사하여 선교를 시작한 곳이 나가나할리 마을이었습니다. 인도 목사님은 외국인이 사역하기에는 위험한 지역이라면서 만류하였지만 저는 남편과 기도하고 그 곳에서 선교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나가나할리교회 (아가페센터)

중,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했던 경험을 토대로 오후에 공부방을 개설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학교를 시작하였고 몇 개월 후에 유치원도 시작하였습니다. 이곳 시골마을에서는 학교없이 교회만 하는 것은 표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방과후 학교와 유치원은 선교를 하기위해 좋은 발판이 되었습니다.

현지 사역자의 도움을 받아 사역을 열심히 하면서 많은 아이들이 모이게 되고 교회학교도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나다보니 현지사역자에게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서 남편은 같이 사역하기가 힘들다고 말하자 현지사역자는 집주인을 꼬득여서 우리를 그곳에서 내쫓았습니다. 유치원 아이들과 방과 후 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나갈 공간이 그 마을에는 없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나왔습니다. 그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작은 집을 얻어서 유치원과 방과 후 학교를 시작하였습니다. 주일 날 보니 우리를 따라온 아이들은 모두가 가난한 아이들이었습니다.



방과 후 학교 어린이들

그렇게 많던 아이들이 다 떨어져나가고 나는 인도에 와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다른 지역으로 옮기자고 했으나 저는 버스를 타고 사역지를 오고 가면서 뿌린 시간과 노력이 아까워져도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인도에서의 영적전쟁은 기도만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부터 재정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과부 가정과 어려운 아이들에게 약간의 장학금을 주자 마을 주민들이 많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가정문제가 무척 심각한데 많은 가정들이 남편의 알콜중독과 구타로 여자들과 아이들이 너무 힘들게 살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은 힘없는 여성들과 아이들을 보살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와의 것이로다.”(시24:1)

이 말씀처럼 이곳 나가나할리 지역에 아가페센터가 세워지고 기독교학교가 세워져서 아이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통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싶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미래를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지혜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단12:3) 말씀을 주셨을 때는 교사가 되는 거라 생각하였는데 선교사 훈련 받고 파송예배 시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곳 인도에서 한알의 밀알이 되어 죽도록 충성하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도 나가나할리에서
김정옥 선교사

동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19일(주) 국군교회설립33주년 감사예배설교를 한다. 20일(월) 한국기독교학술원 46회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21일(화) 여전도회전국연합회 권사장로세미나 개최설교를 한다. 국민운동기독교운동본부(통합측)지도자연합회 임원회에 참여한다. 22일(수) 국민운동기독교운동본부(감리교)지도자연합회에서 인사의 말씀을 한다. 23일(목) 한국군선교연합회 이사회에 참여한다.

- 특남: 서준권 목사 유정민 성도
- 주일식당봉사: 빌립선교회 리브기전도회(10.19) 안드레선교회 한나전도회(10.26)
- 금주의 식사 제공: 임선철 집사 이영주 권사 가정(자녀 결혼 감사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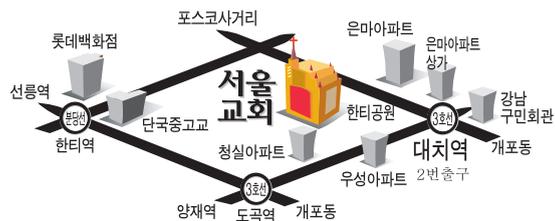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금요일 오전 11시, 그리고 주일 예배와 찬양예배까지 계속되는 VIP초대 새생명 축제를 통해 영혼 구원의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2. 10/30-31까지 있는 목회자 신학 세미나가 잘 준비되고 많은 목회자들이 참석하여 한국교회를 향한 큰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3. 토요일과 주일에 있는 자녀들과 임시생들을 위한 학부모 기도회에 많은 성도들 참석하여 지혜를 주시는 주님의 응답을 얻을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영아동시동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